

LIZARDIANS

3
ON

2082

이영주

▪ CH03

06.17-06.30



1

980

5

3채널 형식의 3-D애니메이션 <리자디언들>은 도롱뇽(Axolotl)의 뛰어난 재생 능력을 인간이 과학 기술을 이용, 모방할 수 있게 된 근미래를 상정한다. 세 개의 스크린은 각각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 ‘리뉴’, 자신의 신체를 재생하여 리뉴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노동자 여성, 그리고 불량품으로 폐기된 사지를 이용해 만든 예술 작품으로 유명세를 얻는 불량품 처리장의 관리자를 따라간다.

오른쪽 스크린에 등장하는 여성은 리뉴의 노동자/상품으로, 타인과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자신의 신체를 재생한다. 리뉴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그녀의 신체를 모니터링 하며, 여성은 오직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외부와 대화할 수 있다. 그녀는 허용된 잠깐의 외출 시간 동안 공장 밖에서 다른 노동자의 시체를 발견한 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그러나 이는 시스템에서 수치화되지 않고, 리뉴는 ‘불량품’이 된 그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가운데 스크린은 반짝거리는 리뉴의 로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여성이 건강한 팔 다리로 춤을 추는 언캐니한 홍보 영상,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관리 시스템 등을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의 모습에서 리뉴가 사람의 팔과 다리가 컨베이어 벨트 위를 돌아가는 공장을 운영하며 노동자를 격리하고 그의 신체를 착취하는 곳임을 알게 되면, 이는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적 모습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오늘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강화된 버전일 뿐이다. 바이오테크 산업과 뷰티 산업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미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발전된 의료기술을 이용해서 신체를 변형하도록 부추긴다. 면직물에서 전자기기까지 대부분의 제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 노동자의 신체를 착취하며,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부품화하고 시스템에 종속시킨다. <리자디언들>은 인간의 신체가 곧 상품이 되는 상상을 통해 노동이라는 중간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우리 시야에서 감춰져 있던 사실들을 드러낸다. 왼쪽 스크린에서는 리뉴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리뉴 공장의 처리장에서 일하는 남성은 불량품으로 폐기된 신체를 쌓아올려 놓고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한다. 그는 이 사진들로 인터넷

상에서 유명세를 얻게 되고, 갤러리를 통해 리뉴의 사장과 친구 사이인 예술품 수집가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는 리뉴의 도움으로 갤러리에서 화려한 개인전을 개최한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불쾌감과 죄책감을 일으키는 상품 생산 과정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소비 환경에서 제거하고, 생산과 소비의 두 세계를 분리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삼성과 애플 같은 기업들은 갤러리처럼 조성된 환경에서 전자 기기를 몰신화하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그 작은 기기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야기한다. 리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리자를 이용해 그들의 상품을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켜 실제 갤러리에 전시한다. 이는 어쩌면 리뉴가 생산하는 것이 인간의 사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리뉴의 상품은 이제 고도로 맥락화되고 개념화된 현대미술의 언어를 얻는다. “아름답지만 동시에 비극적으로 보였죠. 분리된 팔 다리는 모두 불완전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제품 생산과정의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은폐하는 이런 설명은, 현대사회에서 이미 만연해 있는 예술이 자본과 공모하는 교묘한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은 해고된 후 갤러리를 찾아가 어쩌면 자신의 신체였을지 모를 사지들을 마주한다. 여성이 이 전시장에 들어섬으로써 리뉴가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있던 여성과 남성의 삶이 겹쳐 지며, 세 개의 스크린은 하나의 영상이 된다. 이는 여성과 남성, 공장과 전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세계가 사실은 하나이며 갤러리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고안된 무대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여성이 사지 조각들을 있는 힘껏 칼로 찢러 무너뜨리는 장면은 반달리즘이 아닌 카타르시스로 다가오는데, 이는 그 사지에 대한 권리가 여성에게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은수 / 독립 기획자

리자디언은 자신의 팔다리를 재생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재생된 사지는 원래의 목적대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은 폐기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이 기괴한 폐기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려 각광을 받는다.

<리자디언들>의 시나리오는 2010년대에 이산화되었던 세계 대기업들의 전자제품을 생산해 주는 폭스콘(Foxconn) 공장(중국 선전에 위치)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 사건들과 1990년대 중반 한국 삼성 반도체 산업 공장 노동자들의 조기 사망 사건들을 접하면서 쓰게 되었다.

타이완 기업인 폭스콘은 애플, HP, 블랙베리, 노키아 등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의 부품들을 주로 생산하고 조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나이 어린 노동자들은 고향을 등지고 돈을 벌러 도시로 온 이방인들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공장 노동자들이 기숙사에서 뛰어 내려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낮은 임금과 긴 노동 시간, 직장을 위해 가족과 고향을 떠난 이방인들이 겪는 심리적 소외감 등이 이유였다고 한다. 반도체 생산의 주역을 맡고 있는 삼성 공장에서는 2007년 황유미 사건을 시작으로 반도체 제조 공장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되었지만, 11년이 지난 2018년에야 삼성



<Lizardians> is a three-channel 3-D animation that depicts an alternative reality in the near future, in which a technology that applies the axolotl salamander's genetic powers of regeneration to

the human body has been commercialized for mass consumption. Beyond neoliberalism and cognitive capitalism, <Lizardians> is set in a biocapitalist factory where conflict arises between protagonists from different classes as they question the value of labor, creativity, agency, and authorship. Each of the three channels embodies part of the story, like limbs to a whole: a regenerator (*Lizardian*), a

janitor, and the *RENEW* corporation itself. Shelby

endures pain, immobility, and isolation in order to perform her job of regrowing her limbs, while Caleb works in the disposal department of the factory and in his spare time salvages defective human limbs to make art. As he develops a following on social media and begins to sell artwork made of company property, *RENEW* intervenes. Shelby and Caleb's synchronous yet contrasting lives unfold separately until all three channels merge as they meet at the open-

은 반도체 제조 공장의 작업 환경과 공장 노동자들의 희귀병 발병의 연관성을 인정하였다.

폭스콘과 삼성 등의 대기업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터진 이후, 사실은



폐하는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 폭스콘은 공장내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는 대신 기숙사 건물에 거대한 그물 구조망과 창문에는 창살을 설치하였고, 애

플은 기업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폭스콘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는 새로운 스마트폰 기종이 출시 되기 이전에 치솟는 주문 예약 속도를 맞추기 위해 공장 노동자들이 가장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폭스콘은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계속해서 제기 되자, 2018년도에 80% 이상의 노동자들을 로봇으로 대체할 것임을 발표했다. 삼성은 동남아시아로 생산 공장을 옮겼다.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동남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ing reception of Caleb's exhibition featuring sculptures made with some of Shelby's body parts.

<Lizardians> was conceptualized after encountering international media coverage of two incidents that occurred in quick succession in 2010—a series of employee suicides at the Foxconn factory and industrial park in Shenzhen, China and revelations that worker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had been diagnosed with or died from nonhereditary maladies and rare illnesses including miscarriages, heart disease, and cancer in South Korea since the mid 1990s. At the time, Taiwanese multinational contract manufacturer Foxconn was the largest producer of electronic parts for global corporations such as Apple, HP, Blackberry, and Nokia, producing parts for smartphones, computers, and other ubiquitous electronic devices used around the world daily. Many of its workers relocate from rural areas to Shenzhen at a young age to make money to support their families back home. Working notoriously long hours doing tedious labor for low wages, Foxconn workers suffer from the physically demanding work and the psychological distress of living far from family and friends. Samsung, one of the

이 기사들을 접하면서 소비자로서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과 컴퓨터 등,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전자제품들이 어떠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 생산되는 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이 판매

되는 공간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화려한 매장 안에 보이는 매끈하고 반짝이는 표면을 가진 전자 기기들은 기업의 이미지로 포장되어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노동력에 대해서는 쉽게 잊게 만든다. 만약 이 ‘보이지 않는 노동’의 결과물이 노동자 개개인의 생김새를 닮으면 어떨까? 공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한 자신의 몸이 화려한 가게에 진열된 것을 보는 느낌은 어떨까? 나는 <리자디언들>을 통해 자본이 점차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제어하는 사회에서의 노동의 가치, 저작권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야기 속에서 남자 주인공 칼렘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다. 소셜 미디어,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을 통해 우리는 예술작품들을 모두 하나의 평평한 이미지로 접하며, 이러한 플랫폼에서 인간 사지로 만들어진 섬뜩한 조각품은 하나의 흥미롭고 독특한 이미지로 인식된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편집되고 미화 필터를 끼운 이미지로 만들어진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의 인식 상태를 함



maj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ies in South Korea, was also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disputing the connection between factory working conditions and their employees' health

problems—though the company officially apologized to the family of Hwang Yu-Mi 11 years after she died of leukemia at age 22.

There are similarities in the unethical operations of global corporations such as these that include the exploitation and casual disregard for human life. When challenged, these companies simply moved their factories to less regulated Southeast Asian locations, where similar problems continue to occur. As customers and con-

축적으로 보여준다. 셀비(여주인공)가 재생된 팔다리로 만든 조각품들을 발견하고 이를 마구 파괴하는 순간 영상 속 방문객들 눈앞에 끼워진 미화 필터가 산산이 조각나고(비록 곧 다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중재되긴 하지만), 잠시나마 셀비가 그녀의 몸과 노동의 결과물을 되찾는다.

이영주

ENTANGLEMENTS



CALEB JONES

APR 15-JUN 17, 2082

OPENING RECEPTION: APR 15, 5-8PM

ENTANGLEMENTS

얽힘



구성, Composition I, pigment print on glass, 53cm x 94cm



구성, Composition II, pigment print on glass, 94cm x 53cm



구성, Composition III, pigment print on glass, 53cm x 94cm



구성, Composition IV, pigment print on glass, 94cm x 53cm



구성, Composition V, pigment print on glass, 94cm x 53cm



구성, Composition VI, pigment print on glass, 94cm x 94cm



구성, Composition VII, pigment print on glass, 94cm x 53cm



구성, Composition VIII, pigment print on glass, 53cm x 94cm



구성, Composition IX, pigment print on glass, 94cm x 53cm



구성, Composition X, pigment print on glass, 94cm x 53cm



Caleb Johnson

Gallery Monica Jenkins is pleased to present new works of Caleb Johnson, Entanglements.

The artist has been previously known as “the collector” on the gallery’s FLASH posts.

Johnson has been working with the regenerated human limbs while he worked as a quality controller at one of the major limb regeneration facilities. His photographic works capture the temporality of our existence and our interdependence on one another. The limbs are entangled together, almost hugging each other.

This is Johnson’s first solo exhibition in Amira, and it is also the first time these limb sculptures are presented in person in the gallery. Caleb is working with scientists specialising in the regenerated limbs to prolong the lifespan of these biological sculptures. In the current state of the sculptures, they will age like a regular human body. Johnson is also working with a perfume chemist to give different scents to each sculpture, another signature he plans to develop for his future work.

The work will be on view until June 17th.

*This exhibition is generously supported by RENEW corporation.

갤러리 모니카 젠킨스는 칼렘 존슨의 새로운 작품들 <얽힘>을 선보인다.

칼렘 존슨은 갤러리의 FLASH 포스트를 통해 컬렉터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다.

존슨은 인간 재생사지 공장에서 품질관리자로 일하면서 그의 조각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의 사진 작업들은 인간 삶의 일시성과 인간 사이의 상호존적인 관계를 상징적인 이미지로 잡아낸다. 그의 사진 속 인간 사지들은 서로 껴안은 듯이 엉켜있다.

<얽힘>은 존슨의 아미라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이며, 인간 사지 조각품들이 실제로 처음 전시되는 전시이기도 하다. 존슨은 인간 사지 재생 과학자들과 이 사지들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사지 조각작품들은 일반인의 몸과 비슷한 속도로 나이가 든다고 한다. 존슨은 또 향수 화학자와 사지 조각품에 분사할 수 있는 고유의 향수를 개발하는 중이다.

본 전시는 6월 17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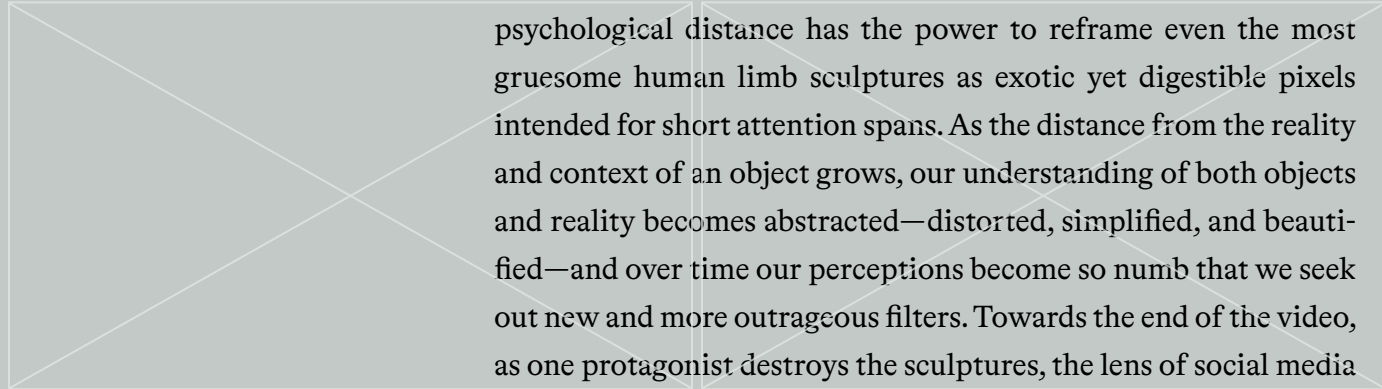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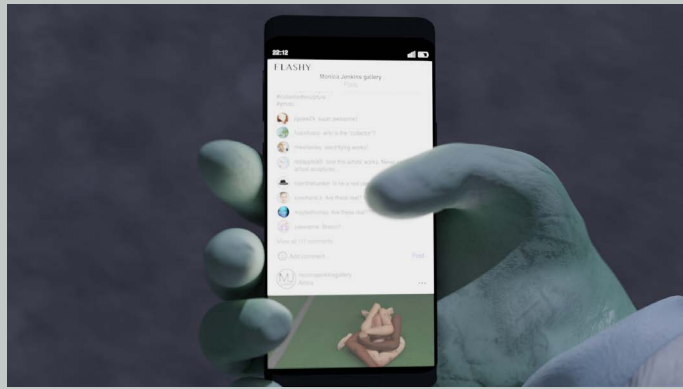
*이 전시는 리뉴 기업이 후원하였습니다.

sumers, we are not given access to the stories of those who produce the goods we use. The shiny and slick surfaces of these electronics sold in similarly shiny and slick stores are designed to make us forget the hands that made the parts and assembled our devices. What if the products for sale resembled the individual workers’ physical



appearances? How would a worker feel to see the result of that labor for sale, detached from their own body? Through <Lizardians>,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a corporation is given shape and the moral responsibilities of living in a world increasingly dominated by corporations comes into question.

As the narrative of <Lizardians> progresses, Caleb temporarily escapes his reality through the use of social media. Reflecting



upon the ways in which we engage with artworks and each other through corporate controlled digital platforms such as Instagram, all art and experience is transformed into small, flat images. This psychological distance has the power to reframe even the most gruesome human limb sculptures as exotic yet digestible pixels intended for short attention spans. As the distance from the reality and context of an object grows, our understanding of both objects and reality becomes abstracted—distorted, simplified, and beautified—and over time our perceptions become so numb that we seek out new and more outrageous filters. Towards the end of the video, as one protagonist destroys the sculptures, the lens of social media is momentarily shattered along with its all powerful beautifying filter and for a brief moment, perception opens to reality.

Young Joo Lee

이영주는 미국과 유럽에 체류하며 비주류, 이민자, 여성, 그리고 문화적 유목민의 경험에 대하여 애니메이션, 드로잉, 퍼포먼스 등을 통해 이야기해 왔다. 최근의 영상 작품들에서 작가는 ‘이방인’과 ‘타인’에 대한 개념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발현되는 상황을 탐구한다. 이영주는 현재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이영주는 예일대학교 조소과 석사와 프랑크푸르트 슈테델미술학교 영상과 석사를 취득하였다. 2018-2020년까지 하버드대학교 미디어 프랙티스 연구원으로 있었으며, 2015-2018년까지 풀브라이트 장학생, 2010-2012년까지 DAAD 예술 장학생이었다. 이영주의 작업은 국내와 해외에서 전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뉴욕 드로잉센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울대미술관, 카이로 비디오페스티벌, 한국계 미국인 영화제, 안솔로지 영화 아카이브, 대안공간 루프, 쿠리치바 비엔날레 등에 참여하였다.

Young Joo Lee's work deals with personal narratives about her experiences of being an immigrant in Europe and the US, a woman, and a cultural nomad. In her recent moving image, drawing and performance works, these personal narratives interweave with the current and historical narrativ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ssues of cultural colonialism, alienation, and assimilation processes.

Lee has an MFA in Sculpture at Yale University and an MFA in Film at Academy of Fine Arts Städelschule Frankfurt. Lee was a College Fellow in Media Practice at Harvard University (2018-20), a Fulbright Scholar in Film & Digital Media (2015-18) and a recipient of DAAD artist scholarship (2010-12). Her work has been exhibit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venues; The Drawing Center New Yor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the Arts, Cairo Video Festival, Korean American Film Festival, Anthology Film Archive, Alternative Space Loop and Curitiba Biennial for the Arts.



리자디언들, 2021
3채널 애니메이션
27' 40"

Lizardians, 2021
3-Channel Animation
27' 40"

제작진

감독 / 시나리오: 이영주
 프로듀서: 이영주
 스토리보드: 이영주
 리드 애니메이션: 에드가 로메로
 애니메이션: 이영주, 베트랑 플라네,
 라우타로 코스타 로메로
 3D 모델링: 에드가 로메로, 볼로디미르
 칸도하, 이영주
 3D 건축 모델: 마이크 콕
 미술감독: 이영주
 셸비 공장 의상 디자인: 전혜선
 로고 디자인: 요이

포스트 프로덕션

렌더링: 에드가 로메로
 편집: 이영주
 음향 디자인: 황명수
 음악: 강해진

출연진 (등장 순서)

발레리나: 엘렌 프레스
 컬렉터: 카요테 소에미
 셸비: 이영주
 보이스: 린지 윌슨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자: 브리안 브이샤스
 모니카 갤러리스트: 디나 엠. 셀리모비치
 컬렉터: 브랜든 키튼
 갤러리 어시스턴트: 린지 윌슨
 공장 기숙사 동료: 뎀 첸
 공장 노동자 1: 조 바그타스
 공장 노동자 2: 맥 쿠어
 셸비 동생: 아바 와얀트
 구걸하는 여자: 멜리사 챔버스
 리뉴 로비 안내원: 메디슨 크로포드
 리뉴 직원: 브랜든 로빈슨
 큐레이터: 케이시 맥널티

후원

서울문화재단 /
 하버드 영상연구센터

협력

탈영역우정국

그래픽 디자인

이재진



감사의 말

비앙카 보라지	아오 리
에드워드 콜롬비아	도리안 메인즈
스틴 달만	클라라 무르기
린다 프랑케	홀리오 파라마티네즈
함지원	소날리 프라사드
케네스 휴즈	프리마 사쿠다바이
전다혜	리오르 샴리즈

Production

Director / Writer: Young Joo Lee
 Producer: Young Joo Lee
 Storyboard: Young Joo Lee
 Lead Animation: Edgar Romero
 Animation: Young Joo Lee, Bertrand Flanet,
 Lautaro Costa Romero
 3D Modeling: Edgar Romero, Volodymyr
 Khandcha, Young Joo Lee
 3D Architecture: Mike Kwok
 Art Direction: Young Joo Lee
 Shelby's Costume Design: Hye Seon Jeon
 Logo Design: Yo-E Ryou

Post Production

Rendering: Edgar Romero
 Editing: Young Joo Lee
 Sound Design: Myung Soo Hwang
 Original Music: Hae Jin Kang

Cast (in order of appearance)

Ballerina: Ellen Press
 Caleb: Kayodè Soyemi
 Shelby: Young Joo Lee
 VOICE: Lindsey Wilson
 Gallery visitor: Brianne Buishas
 Monica Gallerist: Dina M.Selimovic
 Collector: Brandon Keeton
 Gallery assistant: Lindsey Wilson
 Factory dorm mate: Dan Chen
 Factory worker 1: Joe Bagtas
 Factory worker 2: Mack Kuhr
 Shelby's sister: Ava Wyant
 Homeless woman: Melissa Chambers
 Information desk woman: Madison Crawford
 Recruitment office person: Brandon Robinson
 Curator: Kasey McNulty

Sponsor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Harvard Film Study Center

Partnership

Post Territory Ujeongguk

Graphic Design

Jaemin Ee

Special thanks to

Bianca Boragi	Ao Li
Edward Columbia	Dorian Mains
Stine Dahlman	Clara Murgui
Linda Franke	Julio Parra Martinez
Jiwon Ham	Sonali Prasad
Kenneth Hughes	Prima Sakundabhai
Dahae Jun	Lior Shamriz

오만
 사정
 있다
 자다

탈영역우정국
 POST TERRITORY UJEONGGUK

THE FILM STUDY CENTER
 AT HARVARD UNIVERSITY